

12월 실국장회의 말씀참고

12.28.[화] 09:30 온나라 PC영상회의

□ 모두말씀

어느덧 12월 끝자락에 올해 마지막 실국장회의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로움.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마무리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가 있었던 다사다난한 해였다고 생각함.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변화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공직자들 모두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로 고생 해주셨음.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를 전하며 회의를 시작하고 싶음.

특히 코로나19 방역 현장의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와 의료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음.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기에 우리 공동체의 안전이 확보되고,
그 기반 위에서 우리 인천이 도약하고 성과를 낼 수 있었음.

2021년은 인천형 뉴딜을 통해 인천의 산업과
경제의 고도화를 이룬 한해였음.

K-바이오 랩허브 유치, 수소산업클러스터 등 바이오·수소 산업과
항공정비산업(MRO)·미래모빌리티 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 정부 공모선정과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성공하였음.

또한 KTX와 제3연륙교 착공, 영종지역 대중교통 할인 협약,
백령공항 예타 대상 선정 등 교통분야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개선이 있던 해임.

그 밖에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제도화를 통해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

매립 금지와 2025년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으며, 상수도 ISO22000 획득, 본격적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등 지속가능도시로의 변화를 이뤄내고 있음.

300만 인천시민들과 함께 만든 이들 성과는,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던 우리 7천명 인천시 공직자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함.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았다는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고 싶음
우리도 때론 지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과
옆에 계신 동료들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기 바람

내년에도 내가 만든 정책으로 인천이 바뀌고, 내 가족을 포함한
인천시민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 일에 함께 노력해주기 바람.

2022년이 호랑이 해이니 만큼 호랑이처럼 기운차고 희망차게
새해를 맞이하길 희망하며, 내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함. 감사함.